

학자금대출상환으로 인한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곽민주(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초빙객원교수)

이희숙(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I. 서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초년생’은 취업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한다. 따라서 사회초년 시기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한 개인이 100세 시대를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시기 동안에 받았던 학자금대출은 일생을 위한 재정적 첫 단추를 끼우기도 전에 ‘부채’라는 굴레로 작용하고, 이러한 굴레는 사회초년생들이 취업을 하여 갖게 되는 재정적인 희망보다는 스트레스를 줄 가능성이 높다. 즉, 대학졸업 후 처음 돈을 벌자마자 지속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대출금을 갚아야 해서 다른 희망적인 재정적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사회초년생들에게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대출자 1,070명을 대상으로 ‘대학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많은 조사대상자(74.5%)가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출금액은 평균 1,44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이 남아 있는 응답자(569명)들은 아직 이를 갚기 위해 매월 평균 22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 중 53.9%는 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연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해 많은 응답자들이 ‘빨리 취업하기 위해 묻지마 지원’을 한다고 하여 구직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스포츠경향, 2014.02.12.) 이러한 현상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회초년생들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짐작하게 해 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학자금대출이 개인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2014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 가계차주(借主, 돈을 빌리는 당사자를 의미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6월말 당시 중신용(5~6등급) 차주의 평균 25.2%, 고신용(1~4등급) 차주의 평균 7.2%가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저신용(7~10등급)으로 하락하였는데, 특히 20대의 저신용 하락율이 27.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20대가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하여 고금리 대출기관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머니투데이, 2014.02.04).

이상의 내용들은 사회초년생이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인해 재무관리 행동에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 학자금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학자금대출 관련 연구들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교육적 측면에서 학자금대출 제도가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켰는지(김안나, 이병식, 2008a; 김훈호, 2010 등), 학업성취 향상 및 대학중도탈락률을 감소시켰는지(김안나, 이병식, 2008b; 김지하, 이병식, 2009a 등), 노동성장에 기여했는지(우광호, 안준기, 황성수, 2010; 김영식, 주현준, 김경선, 2012; 이필남, 김경년, 2012 등) 등과 같은 학자금대출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나, 학자금대출을 받은 수요 집단의 특성(김지하, 이병식, 2009b; 남수경, 이회숙, 2012 등)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7만 8,069명으로 2008년 4만 682명에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조선비즈, 2012.11.17)으로 나타나 이 문제의 심각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인한 채무부담을 느끼는 사회초년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학자금대출 관련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생주기 중 소득 발생으로 경제적 독립을 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재무목표를 실천하면서 올바른 재무관리 행동을 습득하여야 할 ‘사회초년’의 생애주기에 학자금대출이라는 큰 부담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재무관리 행동을 습득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의 현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현황 및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학자금대출 경험유무가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사회초년생의 정의

사회초년생이라 함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으며, 연구자에 따라 사회초년생의 시기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초년생의 금융사회화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한 한지형(2013)은 사회초년생을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첫 직장에 취업한 신입사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회진출초기자의 주택선택에 관한 연구를 한 백두진(2008)은 ‘사회 진출 후 5년 이내’로 하였다. 또한 사회초년생의 직무만족도와 조직 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슬기(2011)는 회사생활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6개월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초년생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음에 기초하여, 본 연구

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사회초년생을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3년 이내인 자’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직장생활을 통해 얻은 소득 중 일정비율을 학자금대출을 상환할 정도의 경제적 독립성을 갖고 있으면서,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인해 다른 소비지출비목의 사용이 제약되어 경제적 스트레스를 느낄 정도의 기한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2. 학자금대출 제도 및 현황

우리나라 최초의 학자금대출제도는 1961년과 1962년에 정부가 대학장학금법과 대여자 장학금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하여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에 대하여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하고 졸업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였다(박정훈·정용운, 2010). 이후 금융기관을 통하여 등록금의 상당액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고 그 이자액 중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하는 이차보전방식에 의한 학자금대출 제도 형태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지만, 그 결과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차보전액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시작하였다(김훈호, 2011). 결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수혜 인원 및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2005년 2학기부터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SLBS¹⁾)에 따른 정부보증금 학자금 대출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높은 학자금대출 금리와 국가보증채무로 인한 잠재적 재정위험성 증가 문제가 대두되면서 2009년 1월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장학기금과 교육부 산하의 특별 법인으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그리고 각 금융기관에 흩어져 운영하던 학자금 및 장학금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박정훈·정용운, 2010). 각 학자금대출제도의 변천과정에 따른 운영방식을 비교 정리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유형으로는 ‘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가 있다. ‘든든학자금대출’은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에 필요한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이고,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학부생/대학원생이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하는 방식이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졸업 후 2년 뒤부터 분할상환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한국장학재단, 2015).

1) Student Loan-Backed Securities의 약어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의 학자금을 대출하여 발생된 채권으로, 발행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일정수준의 가산 금리(발행기관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콜옵션 프리미엄)를 더하여 결정됨(박정훈·정용운, 2010, p. 334).

〈표 1〉 학자금대출 제도의 변천과정 및 운영방식

구분	이차보전 방식 ('05.1학기 이전)	SLBS 발행 방식 (05.2학기~09.1학기)	재단채권 발행 방식
대출주체	금융기관	금융기관	장학재단
관리기관	학술진흥재단	주택금융공사 내 학생신용보증기금	장학재단
대출한도 (1인당)	2천만원	4천만원(대학) 6천만원(대학원) 9천만원(전문대학원)	4천만원(대학) 6천만원(대학원) 9천만원(전문대학원)
대출금리	8.25~9.2%	6.59~7.8%	2.9%
정 부 이자지원	소득 무관 (4%)	소득수준별 차등화 (무이자~7.8%)	소득수준별 차등화 (무이자~2.9%)
대출기간	총 14년 (7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총 20년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총 20년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상환방식	원금균등	원금균등/원리금균등	원금균등/원리금균등
채권보전	부모 연대보증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정부 보증(학신보 보증)	정부 보증(장학기금 보증)

자료 : 박정훈·정용운(2010). 학자금 대출 제도의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건전성 : 갈등관계의 시뮬레이션
분석 연구. 행정논총, 48(4), p 332.
한국장학재단(2015)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2011년의 학자금대출 누적현황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즉,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대출자는 2009년 13만2,037명이었으나 2010년 14만7,529명, 2011년에는 15만5,774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이 대출받은 액수도 2009년 1조8,567억원에서 2010년에는 2조1,001억원, 2011년에는 2조2,251억원으로 증가하였다(경향신문, 2012.09.24.). 이처럼 고액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수와 금액의 증가는 ‘채무불이행자’ 양산이라는 사회문제 역시 양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2〉 학자금대출 누적현황

(단위 : 명, 억원)

대출액	2009년		2010년		2011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500만원 미만	13만9,056	4,879	13만3,829	4,561	11만2,173	3,825
1,000만원 미만	14만9,435	1조1,165	16만885	1조2,018	13만 8,085	1조373
1,000만원대	13만2,037	1조8,567	14만7,529	2조1,001	15만5,774	2조2,251
2,000만원대	3만2,147	7,608	4만4,458	1조609	5만4,483	1조3,121
3,000만원대	5,357	1,794	9,630	3,245	1만4,385	4881
4,000만원대	692	171	1,440	631	2,424	1064
5,000만원대	119	67	413	233	891	516

자료 : 경향신문(2012.09.24). 작년 1000만원 이상 고액 학자금 대출 22만명.

그리고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학재단에서 제시한 ‘학자금대출 연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4만682명, 2009년 5만3,008명, 2010년 6만2,829명, 2011년 9만5,182명, 2012년 9만3,510명,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7만8,069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연체인원과 금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08년부터 불과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조선비즈, 2014.03.02.).

<표 3> 학자금대출 연체자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원(누계)	40,682	53,008	62,829	95,182	93,510
금액(누계)	1,759	2,394	3,045	4,924	5,044

자료 : 조선비즈(2014.03.02). 학자금대출 연체자 7만8000명...졸업자도 장학재단도 ‘비명’.

3. 경제적 스트레스의 정의 및 측정

1) 경제적 스트레스의 정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경제생활의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긴장이나 고통, 위협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곤란정도와 반응으로 정의(노자경, 1996; 유을용, 계선자, 2003 재인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긴장, 압박, 불안정성 등과 동일개념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이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유을용, 계선자, 2003).

2) 경제적 스트레스 측정방법

경제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연구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즉, 소득, 자산 등의 경제 변수의 수준을 통한 객관적 측정(유희정 외 5인, 2000)방법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경험을 평가하는 주관적 측정방법(노자경, 1996; 백은영, 2004 등)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IMF에 관련된 경제적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유희정 외 5인(2000)은 현재 가계 월소득에서 1년 전 가계 월소득을 뺀 수치 즉, 가계 월소득의 증감률을 경제적 스트레스의 객관적 지표로 삼아서 분석하였다.

노자경(1996)은 생필품 구입의 어려움, 신용카드 대금 연체, 취미활동 포기 등의 12개의 경제적 사건을 4점 리커트 척도를 측정하여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백은영

(2004)은 지난 1년 간 학생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7가지 재정 문제와 관련한 항목들을 이항 변수로 측정하여 대학생의 재정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였다.

4. 선행연구 고찰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크게 학자금대출 제도의 효과와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채무부담 및 채무불이행에 관한 문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학자금대출 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으로 학자금대출 제도가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김안나, 이병식, 2008a; 김훈호, 2010)나 학업성취 향상과 대학 중도탈락률 감소에 기여(김안나, 이병식, 2008b; 김지하, 이병식, 2009a)했는지, 학자금대출이 노동시장의 성과(우광호, 안준기, 황성수, 2010; 김영식, 주현준, 김경선, 2012; 이필남, 김정년, 2012)에 영향을 주었는지, 학자금대출 수요 집단의 특성(김지하, 이병식, 2009b; 남수경, 이희숙, 2012) 등이다.

선행연구 내용 중 본 연구와 관련된 결과로는 우선, 학자금대출 금액이 높을수록 첫 직장으로 대중적 인기는 없지만 임금이 높은 직장을 선택하고 있었으며 임금성장률이 낮은 직장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사회초년생의 재무행동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채무부담과 채무불이행에 관한 국내 연구는 드문데 비해, 국외에서는 채무불이행 이슈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관련 연구(Baum & Saunders, 1998; Boushey, 2003; Choy & Carroll, 2000; Samuel, & Hoover, 2007 등)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Baum & Saunders(1998)는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학자금 채무로 인해 주택구매를 연기한 사람은 40%, 차량구매를 연기한 사람은 31%, 자녀 출산을 미룬 사람도 22%나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Samuel & Hoover(2007)는 학자금 대출 경험에 있는 대출자 11명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졸업 후 채무부담감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낮은 임금과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액수가 크다는 점, 학자금 대출 시점에서 상환에 대한 제반 정보 및 다른 대체적 금융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학자금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임을 밝혔다.

국내 연구로는 대출금상환에 따른 경제적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이지혜·주소현(2013)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부담’과 ‘소비긴축’으로 인한 재무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전반적인 재무스트레스는 ‘소비긴축’ 즉, 소비생활에서의 경제적 제약보다

는 ‘교육비마련’에 따른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교육비부담’에 따른 재무스트레스 수준은 용돈을 받지 않는 대학생에 비해,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거나 필요할 때마다 받는 학생일수록, 월평균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주관적 경제지위를 높이 평가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교육비마련으로 인한 재무스트레스가 높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기초해 볼 때, 학자금대출 상황은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현황 및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고, 나아가 학자금대출 경험유무가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학자금대출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과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학자금대출 경험유무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1. 학자금대출 경험유무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및 경제적 특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2. 학자금대출 경험유무에 따라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학자금대출 경험유무가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학을 졸업한 후, 현재 소득활동이 3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6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소득활동을 3년으로 제한한 이유는 문헌고찰에서도 명시했듯

이 직장생활을 통해 얻은 소득 중 일정비율을 학자금대출을 상환할 정도의 경제적 독립성을 갖고 있으면서,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인해 다른 소비지출비목의 사용이 제약되어 경제적 스트레스를 느낄 정도의 기한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사대상자 중 학자금대출의 경험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학자금대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구성 비율을 5:5로 할당하여 표집하였으며, 총 610명 중 학자금대출 경험이 있는 자는 302명(49.5%), 학자금대출 경험이 없는 자는 308명(50.5%)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수집은 리서치 전문업체인 (주)엠브레인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15년 4월 21일~25일까지 총 5일간 실시하였다.

3. 변수의 측정방법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내용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최종학력, 전공 등), 경제적 특성(월평균 소득, 월평균 생활비, 자산, 부채 등), 학자금대출 현황(총학자금대출 받은 금액, 받은 횟수, 연체경험여부 등),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은 Lempers와 Clark-Lempers(1997)의 연구에서 사용하였고 노자경(1996)이 번안하여 인용한 척도를 이용하되,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사회초년생의 연령 및 생활영역과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즉, 측정문항 중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12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측정문항의 타당도는 안면타당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에 기초하여 검증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0.933이다.

경제적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구체적 측정내용은 생필품 구입의 어려움, 신용카드 대금 연체, 취미활동 포기 등, 일상생활에서의 경제적 사건에 대한 경험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경제적 사건의 경험 정도를 '전혀 경험이 없다' 0점에서 '자주 그렇다'의 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모두 합산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응답 가능한 점수는 0점에서 48점까지의 범주를 갖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조사내용

구 분	문 항	α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졸업한 대학교유형(국립대/사립대), 전공, 직업, 거주 지역, 결혼여부	
경제적 특성	월평균 소득, 월평균 생활비, 학자금 대출 이외의 다른 채무 여부 및 채무 금액, 자산액(실물자산, 금융자산), 월평균저축액	
학자금대출 현황	학자금대출 받은 횟수, 학자금대출 받은 금액,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대출 유형, 원금 및 이자 상환유형, 월평균 원금 및 이자 상환 금액, 학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 책임자, 학자금대출 원금 및 상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수준, 학자금대출 상환과정에서의 경험	
경제적 스트레스 (4점 리커트)	• 현재의 소득으로 지출을 맞추기 어려워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다. • 돈이 부족해서 현재 직장 이외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 돈이 부족해서 가족원끼리 다투거나 타인과의 관계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 • 돈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한 적이 있다. • 돈이 부족해서 취미활동(예: 등산, 여행 등)을 포기한 적이 있다. • 돈이 부족해서 각종 요금(세금, 관리비,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한 적이 있다. • 돈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일을 미루거나 포기한 적이 있다. •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는 것(수술이나 입원 포함)을 미룬 적이 있다. • 돈이 필요해서 보험을 해약해서 사용한 적이 있다. • 돈이 필요해서 예금(정기예금, 적금 등 포함)해 놓은 것을 해약해서 사용한 적이 있다. • 친구나 친척, 주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 • 예산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물)을 처분한 적이 있다.	0.933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 즉 조사대상자의 학자금대출 현황,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실시하였으며, 학자금대출 경험유무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및 경제적 특성,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χ^2 검증, t-test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에 학자금대출 경험유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Y = \alpha + soc_i + eco_i + loan + \varepsilon$$

Y :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

soc_i : 사회인구학적 특성, eco_i : 경제적 특성, loan : 학자금대출 경험유무

α : 상수, ε : 오차항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최종학력, 졸업한 대학교 유형, 전공, 직업, 거주지역, 결혼여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52.1%)의 비율이 ‘여성’ (47.9%)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은 ‘26~29세’ (51.3%)의 비율이,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졸업’ (70.8%)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졸업한 대학교 유형으로는 과반수가 넘는 79.2%가 사립대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43.9%), ‘이공계열’ (39.3%), ‘기타(예체능, 의학계열 등)’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 (63.9%)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문/관리직’ (20.8%), ‘기타(생산/기술/서비스직 등)’ (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 (31.8%)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결혼여부는 대부분 ‘미혼’ (8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610

구분		N(%)	구분		N(%)
성별	남	318(52.1)	전공	인문사회계열	268(43.9)
	여	292(47.9)		이공계열	240(39.3)
연령	23~25세	125(20.5)		기타(예체능, 의학계열 등)	102(16.7)
	26~29세	313(51.3)	직업	전문/관리직	127(20.8)
	30세 이상	172(28.2)		사무직	390(63.9)
최종학력	대학 졸업(2~3년제)	143(23.4)		기타(생산/기술/서비스직 등)	93(15.2)
	대학 졸업(4년제)	432(7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194(31.8)
	대학원 졸업	35(5.7)		서울외 수도권	157(25.7)
대학교 유형	국립대학교	127(20.8)		광역시	163(26.7)
	사립대학교	483(79.2)		기타(중소도시, 읍, 면)	95(15.7)
			결혼여부	기혼	100(16.4)
				미혼	510(83.6)

2) 경제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으로 월평균 소득, 월평균 생활비, 학자금대출 이외의 다른 채무

여부 및 채무금액, 실물자산액, 금융자산액, 월평균 저축액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월평균 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의 세금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00만원 미만’ (48.9%)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300만원 미만’ (30.7%), ‘400만원 미만’ (11.1%), ‘400만원 이상(9.3%)’의 순이었다. 월평균 생활비(의식주 관련 기본생활비, 공과금 및 주택관리비, 자녀양육 및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경조사비, 월세, 기타 지출액 등 모든 지출비용)는 ‘100만원 미만’ (46.7%)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200만원 미만’ (34.3%), ‘200만원 이상’ (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자금대출 이외의 다른 채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인 80.3%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9.2%에 해당하는 56명만이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평균한 자산금액은 17,516만원이었다. 금융자산(은행 예금, 주식, 채권, 신탁, 저축성 보험(지금까지 낸 금액만 계산), 아직 타지 않은 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등)을 보유한 사람은 75.1%(458명)이었으며, 평균 2,823만원을, 월평균 저축금액은 88만원, 학자금 대출 이외의 부채금액은 평균 2,67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N=610

구분		N(%)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98(48.9)	
	300만원 미만	187(30.7)	
	400만원 미만	62(11.1)	
	400만원 이상	57(9.3)	
월평균 생활비	100만원 미만	285(46.7)	
	200만원 미만	209(34.3)	
	200만원 이상	116(19.0)	
학자금대출 이외의 다른 채무여부	있음	120(19.7)	
	없음	490(80.3)	
구분(단위 : 만원)		N(%)	평균(S.D)
자산	실물자산	56(9.2)	17,516(13493)
	금융자산	458(75.1)	2,823(8592)
월평균저축액		533(87.4)	88(86)
학자금 대출 이외의 채무금액		120(19.7)	2,675(3,513)

2.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상환 현황 및 상환 관련 부정적 경험

조사대상자 중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회초년생은 302명,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308명이었으며, 이 중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회초년생 302명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및 상환 현황과 이들이 상환과정 중 겪은 부정적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 및 상환 현황

조사대상자의 학자금대출 현황은 대학재학 중 받은 학자금대출 횟수, 금액, 상환방법, 대출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학자금대출 상환현황은 상환유형, 상환금액, 상환 주책임자,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수준을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학자금대출 현황으로 대학재학 중 받은 학자금대출 횟수는 평균 3회이며, 학자금대출 받은 금액은 평균 1,28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방법으로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46.0%)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37.4%), ‘모름’ (16.6%)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유형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 (55.6%)의 비율이 ‘든든학자금대출’ (33.8%)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든든학자금대출 제도가 2009년 1월 이후 시작된 유형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현황으로, 상환유형은 과반수가 넘는 85.4%가 원금 및 이자 모두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출시 상환방법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혹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원금 및 이자 모두 상환하고 있는 사람은 월평균 34만원을,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사람은 월평균 11만원을 각각 상환하고 있었으며, 상환의 주책임자로는 대부분 ‘본인’ (87.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 3.94점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수준이 ‘그렇다’ (4점)의 동의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 학자금대출 및 상환 현황

N=302

구분			평균(SD)/N(%)
학자금 대출 현황	학자금대출 받은 횟수		3.41(2.07)
	학자금대출 받은 금액(단위 : 만원)		1,282(874)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139(46.0)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113(37.4)
		모름	50(16.6)
	대출유형	돈돈학자금대출	102(33.8)
		일반상환학자금대출	168(55.6)
		기타	32(10.6)
학자금 상환 현황	원금 및 이자 상환 유형	원금 및 이자 모두 상환	258(85.4)
		이자만 상환	44(14.6)
	월평균 원금 및 이자 상환 금액(단위 : 원)	원금 및 이자 모두 상환하고 있는 경우	339,884(402183)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	116,584(206212)
	상환 주책임자	본인	265(87.7)
		부모님	35(11.6)
		기타	2(0.7)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수준		3.94(0.87)

2) 학자금대출 상환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연체 경험, 상환 유예경험, 다른 대출(금융권)을 받은 경험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연체를 한 경험이 없는 경우(62.2%)가 있는 경우(33.8%)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연체경험이 전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에서 보면 33.8%의 연체 경험비율은 대단히 높은 비율이다. 그리고 연체자 중 평균 연체한 횟수는 4회 정도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초년생이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인한 소비지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자금대출의 상환 유예경험은 ‘있다’ (36.1%)의 비율이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낮지만, 전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에서 보면 역시 높은 비율이다. 그리고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본 경험,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 경험, 적성이나 비전보다 보수를 먼저 고려해 일을 해 본 경험,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두지 못한 경험, 지출을 줄인 경험은 ‘없다’ 보다는 ‘있다’ 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인한 소비지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해 가장 많이 줄이고 있는 지출비목으로는 ‘식비(식료품비)’ (26.8%)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외식비’ (26.0%), ‘의류 및 신발비’ (21.1%), ‘주거비’ (7.7%), ‘교양·오락비’ (6.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사회초년생은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비목조차 줄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해 다른 대출(금융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20.5%, 가족과 친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경험이 있는 경우가 40.1%로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에 비하여 낮지만, 전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에서 보면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또 다른 빚을 내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역시 학자금대출금 상환으로 인한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8〉 학자금대출 상환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

N=302

구분		있다	없다
		N(%)	N(%)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를 한 경험이 있다.		102(33.8)	200(66.2)
평균 연체 횟수		4.42(4.06)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유예한 적이 있다.		109(36.1)	193(63.9)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본 경험이 있다.		231(76.5)	71(23.5)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 경험이 있다.		166(55.0)	136(45.0)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적성이나 비전보다 보수를 먼저 고려해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다.		204(67.5)	98(32.5)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을 그만두지 못한 경험이 있다.		200(66.2)	102(33.8)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지출을 줄인 경험이 있다.		246(81.5)	56(18.5)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해 가장 많이 줄이고 있는 지출비목	식비(식료품비)	66(26.8)	
	외식비	64(26.0)	
	주거비(월세, 주택설비 및 수선비 등)	19(7.7)	
	광열·수도비(수도료, 전기료, 연료, 공동주택난방비 등)	3(1.2)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일반가구, 가정용기기, 가사잡화 및 소모품 등)	2(0.8)	
	의류 및 신발비(내의, 의류 및 신발, 기타 의류 등)	52(21.1)	
	보건의료비(보건의료용품기구, 의약품, 보건의료서비스 등)	2(0.8)	
	교육비(교재비, 학원비 등)	3(1.2)	
	교양·오락비(교양오락서비스, 신문, 도서 등)	17(6.9)	
	교통·통신비(공공교통, 개인교통, 통신비 등)	5(2.0)	
	기타소비지출(장신구, 이미용 서비스 등)	13(5.3)	
계		246(100.0)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다른 대출(금융권)을 받은 경험이 있다.		62(20.5)	240(79.5)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가족과 친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경험이 있다.		121(40.1)	181(59.9)

3.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은 ‘해당 없음’ 0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 4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파악하였고,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해 100점으로 변환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표 9> 참고).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31.90점으로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개의 문항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돈이 부족해서 취미활동을 포기한 적이 있다’ (45.98점)인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돈이 필요해서 보험을 해약해서 사용한 적이 있다’ (21.4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의 점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0~20점’ (34.4%) 구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21~40점’ (28.2%), ‘41~60점’ (21.6%), ‘81~100점’ (9.5%), ‘61~80점’ (6.2%)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0> 참고).

<표 9>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100점 기준)

N=610

구분	평균(S.D)	순위
현재의 소득으로 지출을 맞추기 어려워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다.	35.49(27.38)	3
돈이 부족해서 현재 직장 이외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27.50(27.68)	10
돈이 부족해서 가족원끼리 다투거나 타인과의 관계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	28.11(27.41)	8
돈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한 적이 있다.	42.50(28.86)	2
돈이 부족해서 취미활동(예: 등산, 여행 등)을 포기한 적이 있다.	45.98(29.95)	1
돈이 부족해서 각종 요금(세금, 관리비,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한 적이 있다.	27.21(27.28)	11
돈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일을 미루거나 포기한 적이 있다.	35.32(28.36)	4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는 것(수술이나 입원 포함)을 미룬 적이 있다.	29.54(28.66)	7
돈이 필요해서 보험을 해약해서 사용한 적이 있다.	21.47(26.18)	12
돈이 필요해서 예금(정기예금, 적금 등 포함)해 놓은 것을 해약해서 사용한 적이 있다.	31.72(27.66)	5
친구나 친척, 주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	30.36(27.23)	6
예산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물)을 처분한 적이 있다.	27.62(27.87)	9
총 경제스트레스	31.90(21.93)	

〈표 10〉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 점수 분포

N=610

구분	N(%)
0~20점	210(34.4)
21~40점	172(28.2)
41~60점	132(21.6)
61~80점	38(6.2)
81~100점	58(9.5)

4. 학자금대출 경험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차이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

학자금대출 경험유무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최종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고).

성별의 경우 학자금대출경험자(이하 ‘경험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반면, 학자금대출비경험자(이하 ‘비경험자’) 집단은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최종학력의 경우 대학졸업(4년제)의 비율이 경험자 집단이 비경험자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4년제의 경우 2년제/3년제에 비해 대학 재학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학자금대출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표 11〉 학자금대출 경험유무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

구분		대출경험자 (N=302)	대출비경험자 (N=308)	χ^2
		N(%)	N(%)	
성별	남	187(61.9)	131(42.5)	22.969***
	여	115(38.1)	177(57.5)	
연령	23~25세	51(16.9)	74(24.0)	5.350
	26~29세	166(55.0)	147(47.7)	
	30세 이상	85(28.1)	87(28.2)	
최종 학력	대학 졸업(2/3년제)	57(18.9)	86(27.9)	7.815*
	대학 졸업(4년제)	224(74.2)	208(67.5)	
	대학원 졸업	21(7.0)	14(4.5)	
대학교 유형	국립대학교	61(20.2)	66(21.4)	0.140
	사립대학교	241(79.8)	242(78.6)	
전공	인문사회계열	138(45.7)	130(42.2)	1.227
	이공계열	118(39.1)	122(39.6)	
	기타(예체능, 의학계열 등)	46(15.2)	56(18.2)	
직업	전문/관리직	61(20.2)	66(21.4)	0.448
	사무직	197(65.2)	193(62.7)	
	기타(생산/기술/서비스직 등)	44(14.6)	49(15.9)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99(32.8)	95(30.8)	3.956
	서울외 수도권	82(27.2)	75(24.4)	
	광역시	70(23.2)	93(30.2)	
	기타(중소도시, 읍, 면)	51(16.9)	45(14.6)	
결혼 여부	기혼	52(17.2)	48(15.6)	0.297
	미혼	250(82.8)	260(84.4)	

* $p < .05$, *** $p < .001$

2) 경제적 특성 차이

학자금대출 경험유무에 따른 경제적 특성 차이는 〈표 12〉, 〈표 13〉과 같으며, 월평균 생활비, 학자금대출 이외의 다른 채무여부 및 채무금액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생활비의 경우 두 집단 모두 ‘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비경험자 집단은 ‘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경험자 집단은 ‘200만원 이상’의 비율이 상대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험자 집단이 비경험자 집단보다 더 많은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대출 이외의 다른 채무여부에서는 두 집단 모두 ‘없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지만, 비경험자 집단의 비율이 경험자 집단의 비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학자금대출 이외의 채무액은 비경험자 집단이 평균 3,756만원으로 경험자 집단(평균 2,113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12〉 학자금대출 경험유무에 따른 경제적 특성 차이 I

구분		대출경험자 (N=302)	대출비경험자 (N=308)	χ^2
		N(%)	N(%)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1(46.7)	157(51.0)	7.628
	300만원 미만	86(28.5)	101(32.8)	
	400만원 미만	43(14.2)	25(8.1)	
	400만원 이상	32(10.6)	25(8.1)	
월평균 생활비	100만원 미만	127(42.1)	158(51.3)	9.146*
	200만원 미만	104(34.4)	105(34.1)	
	200만원 이상	71(23.5)	45(14.6)	
학자금대출 이외의 다른 채무여부	있음	79(26.2)	41(13.3)	15.92***
	없음	223(73.8)	267(86.7)	

* $p < .05$, *** $p < .001$

〈표 13〉 학자금대출 경험유무에 따른 경제적 특성 차이 II

구분(단위 : 만원)		대출경험자		대출비경험자		t
		N	평균(S.D)	N	평균(S.D)	
자산	실물자산	19	16,513(13544)	37	18,031(13624)	-0.396
	금융자산	186	2,848(10749)	272	2,806(6754)	0.052
월평균저축액		249	81(100)	284	95(72)	-1.857
학자금 대출 이외의 채무액		79	2,113(3180)	41	3,756(3896)	-2.482*

* $p < .05$

5. 학자금대출 경험유무에 따른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 차이

학자금대출 경험유무에 따른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 차이는 〈표 14〉와 같으며, 학자금대출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은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으며, 총 평균점수 차이는 16.63점이었다.

경제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12개 문항 모두에서도 학자금대출 경험집단이 비경험집단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으며 두 집단 간 점수 차이가 18점 이상인 문항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돈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일을 미루거나 포기한 적이 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는 것(수술이나 입원 포함)을 미룬 적이 있다’, ‘돈이 필요해서 예금(정기예금, 적금 등 포함)해 놓은 것을 해약해서 사용한 적

이 있다’, ‘예산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물)을 처분한 적이 있다’ 등으로 학자금대출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급박한 경험을 비경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4〉 학자금대출 경험유무에 따른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 차이

구분	경험자 (N=302)	비경험자 (N=308)	집단간 점수 차이 ^{주1)}	t
	평균(S.D)	평균(S.D)		
현재의 소득으로 지출을 맞추기 어려워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다.	42.71(25.71)	28.40(27.15)	14.31	6.679***
돈이 부족해서 현재 직장 이외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	36.09(28.33)	19.07(24.28)	17.02	7.970***
돈이 부족해서 가족원끼리 다투거나 타인과의 관계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	36.75(27.38)	19.64(24.70)	17.11	8.106***
돈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한 적이 있다.	50.16(26.95)	34.98(28.74)	15.18	6.726***
돈이 부족해서 취미활동(예: 등산, 여행 등)을 포기한 적이 있다.	52.56(29.52)	39.52(28.99)	13.04	5.502***
돈이 부족해서 각종 요금(세금, 관리비, 신용카드 대금 등)을 연체한 적이 있다.	36.25(27.36)	18.34(24.13)	17.91	8.578***
돈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일을 미루거나 포기한 적이 있다.	44.53(29.09)	26.29(24.51)	18.24	8.379***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는 것(수술이나 입원 포함)을 미룬 적이 있다.	38.99(29.47)	20.29(24.59)	18.70	8.514***
돈이 필요해서 보험을 해약해서 사용한 적이 있다.	29.55(28.41)	13.55(20.99)	16.00	7.919***
돈이 필요해서 예금(정기예금, 적금 등 포함)해 놓은 것을 해약해서 사용한 적이 있다.	40.89(27.56)	22.72(24.69)	18.17	8.578***
친구나 친척, 주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	38.07(27.91)	22.80(24.32)	15.27	7.207***
예산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물)을 처분한 적이 있다.	37.00(28.79)	18.42(23.60)	18.58	8.722***
총 경제스트레스	40.30(21.32)	23.67(19.26)	16.63	10.109***

주1) 집단간 점수 차이 : 학자금대출 경험자 점수 - 학자금대출 비경험자 점수

*** p < .001

6.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학자금대출 경험의 영향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학자금대출 경험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및 경제적 특성은 통제(control)변수로 다중회귀식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점 여부를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계수(VIF) 값이 1.033~1.845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최종학력, 전공이, 경제적 특성에서는 월평균소득, 월평균생활비, 부채여부가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전공이 이공계열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적을수

록, 월평균생활비가 많을수록, 학자금대출 이외의 부채가 있는 경우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동일할 때, 학자금대출 경험유무는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자금대출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은 학자금대출을 채무로 인식하기보다 선물이나 투자 등으로 인식하여 비대출자에 비해 자신을 독립적이고 자존감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백진영(2014)의 연구나 학자금대출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강지영 외 3인의 연구결과(2015)와는 다르게, 학자금대출 상황은 그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6〉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학자금대출 경험의 영향

구분		B	β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1)	3.266	.078
	연령(연속변수)	-.246	-.030
	최종학력(연속변수)	-4.817	-.118**
	대학교유형(국립대=1)	-1.789	-.035
	전공(이공계열=1)	4.723	.110**
	직업(전문/관리/사무직=1)	-2.601	-.045
	거주지역(서울시=1)	-1.383	-.031
	결혼여부(기혼=1)	-.642	-.011
경제적 특성	월평균소득(연속변수)	-2.171	-.124*
	월평균생활비(연속변수)	2.421	.133**
	월평균저축액(연속변수)	-.006	-.024
	학자금대출 이외의 부채여부(있음=1)	6.425	.115**
	학자금대출경험유무(있음=1)	15.412	.367***
상수		39.794***	
adj R ²		0.207	
F		11.696***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현황 및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고, 나아가 학자금대출 경험유무가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학자금대출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과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활동 3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610명을 대상으로 2015년 4월 21일~2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기간 동안의 학자금대출이 학자금 대출 시점에서는 매우 큰 경제적 스트레스로 다가옴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갖는다. 구체적인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자금대출 경험이 있는 사회초년생 302명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자금대출 횟수는 평균 3회, 학자금대출 받은 총금액은 1,282만원, 상환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경우는 월평균 34만원,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는 월평균 11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수준은 3.94점(5점 리커트)으로 경제적 부담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대출 경험이 있는 사회초년생이 학자금대출 상환과정에서의 겪은 부정적 경험으로 학자금대출 경험자의 33.8%가 월상환을 연체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체횟수는 상환 시작부터 이제까지 4회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36.1%이며,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해 가장 많이 줄이고 있는 지출비목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와 관련된 비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초년생의 일부는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지출에도 제약을 받는 상황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학자금대출 경험유무 집단에 따른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수준은 물론 경제적 스트레스 12개의 측정문항 모두에서 학자금대출 경험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두 집단 간 점수 차이가 18점(100점 기준) 이상 인 문항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돈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일을 미루거나 포기한 적이 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는 것(수술이나 입원 포함)을 미룬 적이 있다’, ‘돈이 필요해서 예금(정기예금, 적금 등 포함)해 놓은 것을 해약해서 사용한 적이 있다’, ‘예산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물)을 처분한 적이 있다’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자금대출자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급박한 경험을 비경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론에 기초한 제언으로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으로 독립한 한 개인이 100세 시대를 운택하게 살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시점인 사회초년기의 신용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자금대출 상환의 연체는 물론 무려 평균 4회 정도의 연체 횟수는 사회초년생의 신용관리에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려면 사회초년생 특히 학자금대출 상환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용관리를 포함한 재무관리 교

육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학자금대출 상환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 재학시절 학자금대출을 받는 시점에서, 대출상환 시점에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인지를 시키는 프로그램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9.5%의 사회초년생이 고도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초년생 스스로가 스트레스 수준을 조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영, 윤정윤, 최현자, 손상희(2015). 학자금 대출이 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2015 한국 소비자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안나, 이병식(2008a). 소득수준에 따른 학생의 고등교육 선택의 차이와 학자금 지원의 효과. 교육과학연구, 39(1), 67-84.
- 김안나, 이병식(2008b). 학자금대출이 대학 재학기간 연장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8(4), 55-73.
- 김영식, 주현준, 김정선(2012). 학자금 대출이 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종합연구, 10(4), 225-249.
- 김지하, 이병식(2009a). 대학생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의 영향 분석 : 직접효과, 소득분위별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 교육행정학연구, 27(3), 447-470.
- 김지하, 이병식(2009b). 대학생 학자금대출 수요 집단의 특성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8(1), 27-58.
- 김훈호(2010). 가계소득이 학자금 용자참여 여부 및 용자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6회 한국고용패널학술대회 논문.
- 김훈호(2011). 가계소득이 학자금 대출 참여 및 누적 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0(3), 183-203.
- 남수경, 이희숙(2012). 학자금 대출유형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1(3), 77-96.
- 노자경(1996). 농가 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과 관련 변수.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7(2), 139-152.
- 박정훈, 정용운(2010). 학자금 대출 제도의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건전성 : 갈등관계의 시뮬레이션 분석 연구. 행정논총, 48(4), 325-355.
- 백두진(2008). 사회진출초기자의 주택선택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은영(2004). 재정적 스트레스 및 재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미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2(5), 161-174.
- 백진영(2014).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경험을 통해 본 신용과 부채 인식의 형성.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광호, 안준기, 황성수(2010). 교육 및 부의 세대 간 이전 대학생활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19(3), 121-150.
- 유을용, 계선자(2003).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제복지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55-173.
- 유희정, 황성훈, 홍진표, 김현수, 이철, 한오수(2000). IMF에 관련된 경제적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39(1), 65-77.
- 이슬기(2011). 사회초년생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직무만족도와 조직 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 주소현(2013). 대학생의 재무스트레스와 재무지식 및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6(4), 45-70.
- 이필남, 김경년(201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1(2), 87-115.
- 한지형(2013). 사회초년생의 금융사회화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장학재단(2015). <http://www.kosaf.go.kr>
- 경향신문(2012.09.24). 작년 1000만원 이상 고액 학자금 대출 22만명.
- 머니투데이(2014.02.04). 20대 저신용자 6년새 급증...학자금 고금리대출 악순환.
- 스포츠경향(2014.02.12). 대출자 10명 중 7명, 학자금 대출 경험有 '1인 평균 1445만원' .
- 조선비즈(2014.03.02). 학자금대출 연체자 7만8000명...졸업자도 장학재단도 '비명' .
- Baum, S., Saunder, D.(1998). Life After Debt : Results of the National Student Loan Survey. Nellie Mae, Braintree, MA.
- Bousheym H.(2003). The Debt Explosion among College Graduates.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Issue Paper : Washington, DC.
- Choy, S. P. & Carroll, C. D.(2000). Debt Burden Four Years after Colleg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Samuel, B. D., Hoover, R. E.(2007). Understanding Student Loan Debt Burden for African American Baccalaureate Graduates. *Enrollment Management Journal : Student Access, Finance, and Success in Higher Education*, 1(1), 49-70.